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5.31(금) ~ 2024.6.5(수)

제공일시 2024 06 14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5.31(금) ~ 2024.6.5(수)

제공일시 2024 06 14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 1. AI·기후변화 대응... 美 원전 촉진 위한 '워킹그룹' 가동/ 일본 원전 재가동에 대한 글로벌 우려... 신규 원자로 건설하는 주변 국가들

- 조 바이든 행정부가 원자력발전 산업 부활을 위한 비상 체계를 가동함. 미국 백악관은 2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원자력 프로젝트 관리 및 공급 워킹그룹'을 신설해 원전 건설 지연과 이에 따른 비용 증가를 완화하는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힘
-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의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됨
-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일본의 원전 발전을 재개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함
- 운영을 쉬고 있는 원자료를 재가동하는 것은 새로운 원자료를 건설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함

(서울경제 2024.5.30) 윤홍우 기자

(임팩트는 2024.5.30) 유미지 기자

### 2. 일-유럽연합 '탈탄소' 손잡는다... "공급망 새 규칙 만들 것"/ EU와 호주, 지속가능한 핵심 광물에 관한 파트너십 구축

- 일본과 유럽연합(EU)이 풍력·태양광·수소 등 탈탄소 분야에서 새로운 틀을 만들어 협력을 강화할 예정임. 요미우리신문은 3일 사이트 겐 일본 경제산업상과 카드리 심손 EU 에너지담당 집행위원이 이날 도쿄에서 만나 '탈탄소 협력'에 합의할 것이라고 보도함
- 일본과 EU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탈탄소' 분야 공급망에서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낮추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할 예정임. 이를 위해 태양광·풍력·수소 분야의 물품을 조달할 때 가격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부당한 정부 보조금 여부 △특정국 의존 여부 △환경·인권 △안전성 등을 고려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 방침임
- EU와 호주는 지난 28일(현지시간) 지속가능한 핵심 광물에 대해 협력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로이터, 블룸버그 등의 외신이 보도함
- 양해각서는 2050년까지 호주와 EU가 넷제로 경제가 되는 데 필요한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공동의 약속이 담겨있음

(한겨레 2024.6.3) 김소연 기자

(임팩트는 2024.5.31) 유미지 기자

### 3. EU, 네 번째 공동 수소 프로젝트 승인... BMW, 에어버스, 미쉐린 등 참여

- EU가 본격적인 수소 생태계 구축에 나선. 28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수소 연료 사용 촉진을 위해 최대 14억유로(약 2조714억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 이동성(mobility) 및 운송 부문 배출량 감축에 나설 것이라고 밝힘
- EU 집행위원회가 네 번째 수소 부문 '공동이해관계 프로젝트(Important Projects of Common European Interest, IPCEI)'를 승인함
- 이번 프로젝트는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등 7개 국가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참여국들은 최대 14억유로(약 2조714억원)의 공적 자금을 제공함. 여기에 33억유로(약 4조8828억원)의 민간 투자가 추가로 이루어질 예정임

(임팩트는 2024.5.30) 이재영 기자

## 1. 한·아프리카 48개국 '핵심 광물 대화' 출범으로 공급망 협력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아프리카로부터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상설 협의체인 '한·아프리카 핵심 광물 대화'가 출범한다고 밝힘
- 윤 대통령은 2030년까지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100억달러(약 13조8100억원)로 확대하겠다고 밝힘. 한국 기업들의 원활한 아프리카 진출을 위해 약 140억달러(약 19조3340억원) 규모의 수출금융도 제공하기로 함
- 한·아프리카 양측은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라는 3축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동반성장 분야에선 상호 호혜적 경제협력 증진에 초점을 맞춤. 지속가능성 분야에선 글로벌 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논의함. 연대 분야에선 평화·안보 협력이 논의됨

(경향신문 2024.6.4) 유선희 기자

## 2. 차세대 원자력 확보 본격화... R&D 및 실증에 2.5조 투입

- 정부가 차세대 원자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방안을 내놓음. 기술개발부터 실증까지 총 2조5000억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K-ARDP)가 진행될 예정임
- 정부는 4일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회 심의회의에서 '차세대 원자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힘
- 정부는 먼저 차세대 원자력 기술개발 및 실증 로드맵을 연내 수립하기로 함. 또, 정부는 '한국형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 및 실증 프로그램(K-ARDP; Korea-Advanced Reactor Demonstration Program)'을 도입·추진함. 기술개발과 함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안전규제체계도 마련함. 정부는 차세대 원자력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세움

(전기신문 2024.6.4) 김부미 기자

## 3. 원안위, SMR 표준설계인가 심사기준 마련 '본격화'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26년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이하 SMR) 표준설계인가 신청에 대비해 규제기준 마련에 본격 착수함
- 원안위는 4일 '소형모듈원자로 규제연구 추진단(이하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함. 추진단은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 공모를 통해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가인 김인구 단장이 선정됨
- 향후 추진단은 올해 신규로 선정된 R&D 과제를 포함해 2022년부터 진행 중인 기존 R&D 과제 등을 총괄하며, SMR의 안전성 검증기술과 인허가를 위한 규제요건 개발 등에 속도를 낼 예정임

(에너지플랫폼뉴스 2024.6.4) 박병인 기자

## 4. 중기중앙회, 중기부와 삼성전자와 190개 중소·중견기업 제조혁신 지원

- 중소기업중앙회와 삼성전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4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도입기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3일 밝힘
- 올해 사업은 정부의 고도화 집중 지원 및 민간·지역 주도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기초 등에 따라 △고도화 스마트공장 △지자체 연계 기초 스마트공장 지원 등으로 진행되며, 총 190억원 규모로 190여개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를 지원할 예정임

(대경일보 2024.6.3) 배철호 기자

## 5. 김동연, 기후 위기 대응 위한 '경기 RE100 플랫폼' 구축... 15개 기관과 협력

- 경기도가 도 전역의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 재생에너지 잠재량 등 기후·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경기 RE100 플랫폼' 구축을 위해 국토지리정보원 등 15개 공공·민간 기관과 협력함
- 경기도에서는 경기연구원과 GH,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차세대융합기술원이 함께함
- 도는 이번 15개 공공·민간 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경기 RE100 플랫폼' 구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음

(서울파이낸스 2024.5.31) 유원상 기자

### 1. AI 폭발에 구글·MS·아마존·오픈AI 동아시아로 집결

-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폭발적인 인공지능(AI)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센터를 동남아시아에 짓겠다는 계획을 잇달아 발표함
- ‘전기 먹는 하마’ 데이터 센터 운영 지출 비용 1순위인 전력 소비량에 대한 동남아시아 국가의 지원에 적극 호응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옴
- 3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오픈AI 등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지역 국가에 데이터 센터 건립을 추진함

(뉴스토마토 2024.6.3) 오세은 기자

### 2. 르노-지리그룹, 글로벌 파워트레인 공급 합작사 ‘HORSE Powertrain’ 설립

- 프랑스 르노그룹과 중국 저장지리홀딩스 그룹, 지리 오토모빌 홀딩스가 효율성 높은 연료 연소 엔진, 저탄소 e-연료, 수소 연료 파워트레인을 개발·생산하는 합작법인을 설립한다고 31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함
- ‘HORSE Powertrain Limited’란 이름의 합작법인은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며, 첨단 기술을 활용한 엔진, 변속기, 하이브리드 시스템, 배터리를 포함한 최고의 하이브리드 및 연소 파워트레인 솔루션과 시스템을 설계·개발·생산·판매할 예정임

(M투데이 2024.6.1) 이상원 기자

### 3. BP, 베네수엘라 해상 가스전 사업 협상 중단

- 영국 에너지 기업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이 베네수엘라 가스전 사업 협상을 중단함. 이는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석유·가스 수출 제재를 복원한 데 따른 것임
- 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BP는 지난달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기업 PDVSA와 베네수엘라-트리니다드토바고 해상 국경에 위치한 마나킨 코쿠이나 가스전 개발 협상을 중단함. BP는 추후 PDVSA와 협의를 통해 프로젝트를 재개할 계획임
- 이는 미국 정부가 지난달 대선 공정성 훼손 논란으로 베네수엘라에 대해 석유와 가스 부문 제재를 다시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임

(더구루 2024.6.1) 홍성환 기자

### 4. 中 고선 하이테크, 10분 완충 배터리 기술 공개… 전기차 시장 판도 바꾼다

- 배터리 제조업체 고선 하이테크(Gotion High-Tech)가 10분 안에 80% 이상 충전 가능한 초고속 충전 배터리 기술을 공개하며 전기차 시장에 혁신을 예고함
- 4일(현지시각)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고선 하이테크는 최근 연례 컨퍼런스에서 급속 충전 배터리 2종(G-Current, Stellar)과 새로운 고체 배터리(Gemstone) 기술을 선보임

(글로벌이코노믹 2024.6.4) 이태준 기자

### 5. DHL, 유럽 대륙 최초의 전기차 센터 오픈

- DHL이 최근 공격적으로 전기차 센터를 오픈하고 있음. 이번달에 중국 상하이에 오픈하더니 28일(현지시각)에는 유럽 대륙 최초로 전기차 센터를 오픈함
- 이 센터는 DHL그룹 산하 고객 솔루션 및 혁신팀(Customer Solutions & Innovation)의 전기차 부문과 협력해 해상과 항공 화물 기능을 포함한 DHL 글로벌 포워딩의 입고 및 화물 관리 기능을 결합함

(임팩트온 2024.5.30) 홍명표 기자

## 1. SK오션플랜트, 대만에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수출

- SK에코플랜트 자회사인 해상풍력 전문업체 SK오션플랜트가 2억8550만달러(약 3900억원) 규모의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이하 재킷)을 수출함
- 4일 SK오션플랜트는 공시를 통해, 세계 최대 그린에너지 투자운용사 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CIP)와 대만 ‘펑미아오1’ 해상풍력 프로젝트 재킷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 SK오션플랜트는 CIP가 개발하는 대만 해상풍력 사업에 모두 참여하게 됨

(매일경제 2024.6.4) 서진우 기자

## 2. 엘앤에프,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진출… “IRA·CRMA 등 대응”

- 엘앤에프는 자회사 ‘JH화학공업’을 통해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힘
- 엘앤에프의 자회사인 JH화학공업은 먼저 전처리 사업으로 폐배터리 사업에 진출하며, 향후 후처리 사업까지 확장해 엘앤에프의 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의 중요 부분을 담당할 전망이다
- JH화학공업은 2027년까지 폐배터리 사업을 안정화한 후 공정 자동화와 함께 해외 진출도 계획하고 있음

(데일리안 2024.6.4) 정진주 기자

## 3. 삼성중공업, 中 룽청에 단열탱크 제조공장 구축… 친환경 선박 기술 선도/ 삼성중공업 ‘전기추진선’ 조선소 첫 도입… 대형선 확대 전망

- 삼성중공업이 중국에서 단열탱크 제조공장을 구축해 친환경 선박 시장 생태계 확대에 나섬
- 중국 사업장을 일원화한 삼성중공업은 중국 유일의 사업장에서 단열 저장탱크 설계 및 제작을 통해 현지 친환경 선박 기술을 선도함
- 한편, 삼성중공업이 전기추진선을 도입해 거제조선소 내에서 사용함
- 전기추진선을 컨테이너선 등 대형 선박 시장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국내 조선사들 역시 다음 ‘성장 모멘텀’을 준비하는 모습임

(더구루 2024.6.3) 김소연 기자

(서울경제 2024.6.3) 김경택 기자

## 4.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유럽 차세대 기금 740억원 지원받아… 스페인 동박 생산 가속화

-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가 EU의 차세대 기금(Next Generation EU Fund, NGEU)으로부터 4920만 유로(약 740억원)를 지원받음
- 이 자금은 스페인 타라고나 몽로이그 델 캠프 지역에 건설 중인 동박 생산 시설에 투입될 예정임
-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이번 지원금을 통해 유럽 내 배터리 소재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유럽 전기차 시장 성장에 발맞춰 공급망을 강화할 계획임

(글로벌이코노믹 2024.6.2) 홍정화 기자

## 5. 포스코, 중국 CNGR과 배터리 ‘핵심 광물·소재’ 합작공장 착공/ 포스코인터, ‘천연가스 사업’ 호주 세넥스에너지에 3천억원 투자

- 포스코그룹이 중국 전구체 기업 CNGR과 배터리 소재 사업에서 협력을 강화함
- 포스코홀딩스는 31일 포항 영일만4산업단지에서 니켈 정제공장 ‘포스코씨앤지알니켈솔루션’과 전구체 생산공장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착공을 시작했다고 밝힘
-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자회사인 호주 천연가스 기업 세넥스에너지에 3천억원을 투자한다고 31일 공시함
- 포스코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세넥스에너지의 주주인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헨콕에너지는 세넥스에너지 유상증자에 참여함. 총투자금은 약 6천억원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세넥스에너지 지분율에 따라 약 3천억원씩을 투자함

(디일렉 2024.5.31) 이민조 기자

(연합뉴스 2024.5.31) 이슬기 기자

#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4.5.31(금) ~ 2024.6.5(수)

제공일시 2024 06 14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 백악관, 자발적 탄소시장 가이드라인 발표... 탄소시장 활기 되찾을까

(임팩트는 2024.5.31) 이재영 기자

- 28일(현지시각) 미국 백악관이 자발적 탄소시장(VCM)의 무결성 확보를 위한 7가지 원칙을 발표, 신뢰할 수 있는 탄소시장 개발에 나섰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자발적 지침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음
-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이번 발표가 최근 흔들리고 있는 탄소시장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기대감을 나타낸다고 논평했음. 가이드라인을 통해 탄소시장 신뢰도를 회복시켜 전 세계 탄소 감축 프로젝트에 민간 자본이 유입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임
-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탄소시장은 몇 가지 주요과제를 해결한다면 상당한 탈탄소화를 지원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음. 단, 기업들은 자체적인 배출량 감축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탄소배출권(상쇄크레딧) 구매는 후순위 보완책이 되어야 한다고 부연했음
- 7가지 구체적인 지침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탄소배출권과 이를 발행하기 위한 프로젝트는 실질적인 대기 오염 저감 효과를 가져와야 하며 명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함
- 둘째, 탄소배출권 발행을 위한 프로젝트는 환경과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가능한 공동의 이익 창출과 투명하고 공정한 이익 분배를 지원해야 함
- 셋째,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기업은 우선적으로 공급망 내 자체적인 탄소 감축 노력을 추진해야 함
- 넷째, 탄소배출권 사용 기업은 구매하거나 소멸된 배출권이 무엇인지 공개해야 함
- 다섯째, 기업은 탄소배출권 사용에 따른 기후 영향도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며, 높은 신뢰 기준을 충족시키는 배출권만 사용해야 함
- 여섯째, 탄소시장 참여자들은 탄소시장 신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일곱째, 정책 입안자 및 시장 참여자들은 효율적인 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거래 비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함
- WSJ은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 탄소 상쇄를 위해 탄소배출권을 사용하는 기업은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배출권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탄소배출권 구매에 대한 세부 정보를 자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보도했음. 정보 공개는 비교가능한 표준화된 방식으로 최소 1년에 한 번씩 이뤄져야 함
- 탄소시장 거래 플랫폼 패치(Patch) 기후정책 담당 부사장 루시 하그리브스는 이번 백악관의 지침 발표를 두고 “미국 정부가 기업들을 향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직하게 탄소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이는 미국 정부가 자발적 탄소시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말했다. 앞으로 백악관이 강력한 탄소시장 규제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임
- 자발적 탄소시장이 다시 예전과 같은 활기를 되찾을 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문제임
- 29일(현지시각) 영국 지속가능성 매체 에디(edie)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다수(75%)의 기업들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 상쇄 의존도를 높이는 것에 반대한다고 답했음. 응답자 86%는 “탄소 상쇄는 불가피한 배출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60%는 탄소시장의 신뢰성과 불안정성이 너무 높다며 “현재 투자하기는 너무 위험하다”고 답했음